

암스테르담, 흥등가 단체 관광 금지



지나치게 많은 관광객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네덜란드 수도 암스테르담이 대표 관광 코스의 하나 이던 흥등가(사진) 가이드 투어를 내년 1월 1일부터 금지하기로 했다.

21일 '동아일보'가 네덜란드 공영방송 NOS의 전날 보도를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암스테르담시는 흥등가로 몰리는 관광객을 줄이기 위해 늦은 밤 투어를 금지하고, 흥등가 투어 가이드는 시의 허락을 받도록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광객이 줄지 않자 전면 금지라는 강수를 둔 것이다.

현지매체 AD는 술집 순례나 '롤라와 함께 떠나는 흥등가 투어' 등 이름으로 흥등가 중심에 자리한 암스테르담 구교회 광장을 지나는 투어 그룹이 매주 1,000개 이상이라고 전했다. 가장 붐비는 초저녁 시간에는 1시간에 48개 투어단체가 다녀간 적도 있어 '도시 정글'이란 별명도 붙었다.

성(性)노동자들도 이런 조치에 환영하고 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성 노동자의 80%가 "우리를 뻔히 쳐다보는 관광객 때문에 오히려 사업에 지장을 받고 있다."고 답했다.

인구 85만 명의 암스테르담은 유럽의 거점공항인 스키펀 공항에다 흥등가 등을 찾는 많은 관광객으로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거주민들이 여행객들을 반기지 않는 이른바 '오버 투어리즘'의 대표 도시이다. 지난해 관광객이 무려 1,900만 명에 이르고, 2025년에는 2,900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비슷한 처지인 스페인 바르셀로나, 이탈리아 베니스 등도 관광객 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에베레스트 조난사 시신들 처리 고민

지구 온난화로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산을 덮고 있는 얼음과 눈이 많이 녹으면서 드러난 시신 처리를 두고 네팔 당국이 고심하고 있다.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드러난 시신은 등반 중 조난사한 등산가이다. 수년, 수십 년 동안 빙하의 눈과 얼음 속에 파묻혀 있다가 기온이 오르면서 눈과 얼음이 녹자 모습을 드러낸 것으로 그 숫자가 많아 상당히 일괄 처리의 필요성이 네팔 등산 당국에 의해 거론되고 있다.

에베레스트산 정상에 밟는 데 성공한 등산가는 지금까지 4,800명이 넘는다. 동시에 해발 9km에 육박하는 산에 도전했다가 도중에 눈 속에 사망한 사람도 300명에 가깝다. 사망 에베레스트 등산가 중 3분의 2는 시신이 아직도 산 속에 있다.

정상 정복에 필수 코스로 연못이 연이어 있는 쿵부 빙하 그리고 평평해 '남쪽 안장'으로 불리는 캠프4에서 올 봄 시신들의 돌연한 노출이 유난히 잦았다. 모두 온난화 때문이다.

시신을 산 밑으로 옮기는 처리 작업도 쉽지 않다. 땀 뻘 얼어붙은 시신은 무게가 150kg까지 나가고 대부분



▲ 지구 온난화로 에베레스트산에 얼음과 눈이 녹으면서 드러난 시신 처리를 두고 네팔 당국이 고심하고 있다.

분 끄집어 내기 어려운 곳에 놓여 있다. 한 번 처리 작업을 하는 데 4만 달러에서 8만 달러가 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물리적 사안에 이어 "산에서 조난사했을 경우 자신의 시신이 그대로 거기에 있는 것을 선호하는" 등산가들의 마음도 처리를 어렵게 한다고 한 등산 전문가가 말하고 있다.

대부분의 에베레스트 등산가들은 등반 루트를 트는데 꼭 필요하거나 가족들의 요청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시신을 합부로 옮기고 처리하는 것을 불경스럽게 여기리라는 것이다.

미 해안경비함, 북한 불법 환적 감시차 파견

미국의 해양경찰인 해안경비대(USCG)가 북한의 불법 해상 환적을 단속하고자 일본에 파견됐다.

20일 'KBS'에 따르면 미 인도·태평양사령부는 전날 해안경비대 소속 4천500t급 버솔프 경비함(WMSL-750)이 지난 3일 일본 나가사키현 사세보시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사세보는 미 7함대 상륙전단과 유엔사 후방기지가 있는 곳이다. 버솔프 경비함은 앞서 지난 1월 20일 캘리포니아주 앨러미다의 모항을 출발했다.

버솔프 경비함은 동중국해상에서 북한의 불법 환적 행위를 차단하는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미 인도·태평양사령부는 보도자료에서 "버솔프 경비함 배치는 해상에서 이뤄지는 북한의 유엔 제재 회피 행위에 맞서는 국제 공조 노력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에서 밀반입·반출되는 연료·석탄 등의 공해상 '선박 대 선박' (ship-to-ship) 환적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UNSCR) 위반 행위에 해당된다.

미국의 이번 경비함 파견은 지난달 말 북한 비핵화를 위한 베트남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뒤 북미 양측 간 날 선 공방 속에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뤄진 것이어서 주목된다. 일각에선 북한이 확실한 비핵화 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대북 제재를 더 바짝 조일겠다는 의지를 재차 천명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미 국방부에 따르면 미국은 2017년 10월부터 동중국해에서 북한의 불법 해상 환적 감시를 시작해 지난해 말까지 30차례의 불법 환적을 중단시켰다. 단속에는 미국·일본 외에 영국·프랑스·캐나다·호주·뉴질랜드 등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타운뉴스 업소록

“리스팅 신청하세요!”

타운뉴스 업소록 신청서

Phone: _____ Fax: _____

업소명(한글): _____ 주소: _____

(영문): _____ City _____ State _____ Zip _____

업종: _____

- 영문은 대문자로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규 또는 변경 사항이 있는 업소에서는 내년도 개정판을 위해 지금 곧 수록 신청서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 광고 게재에 대한 상담을 환영합니다.



Tel: 714.530.1367 / Fax: 714.530.6473
11501 Brookhurst St. #202., Garden Grove, CA 92840

townnewsusa.com